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韩国语 泛读教程

上

韩国 新罗大学 合著
中国 对外经济贸易大学

学生用书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韩国语 泛读教程



韩国 新罗大学 合著
中国 对外经济贸易大学

学生用书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北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泛读教程: 上. 学生用书 / 韩国新罗大学, 中国对外经济贸易大学著. —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7.6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ISBN 978-7-5600-6738-4

I. 走… II. ①韩… ②中… III. 朝鲜语—阅读教学—教材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090445 号

出 版 人: 于春迟

责任编辑: 李晓明

封面设计: 孙莉明

出版发行: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社 址: 北京市西三环北路 19 号 (100089)

网 址: <http://www.fltrp.com>

印 刷: 北京京师印务有限公司

开 本: 787×1092 1/16

印 张: 15.75

版 次: 2007 年 6 月第 1 版 2007 年 6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600-6738-4

定 价: 34.90 元

* * *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出版社负责调换

制售盗版必究 举报查实奖励

版权保护办公室举报电话: (010)88817519

编委会成员

主 编 李埰衍 (韩)(韩国 新罗大学)

副主编 徐永彬 (对外经济贸易大学)
崔顺姬 (北京语言大学)

编 者 李埰衍 (韩)
徐永彬 崔顺姬
金罗娟 (韩) 赵炳映 (韩)
申润卿 (韩) 金美淑 (韩)
金洙泰 (韩) 申恩琼 (韩)
赵贞顺 (韩) 金昌九 (韩)

前言

中韩两国于1992年正式建立外交关系，迄今已有15年的历史了。15年来，两国在经济、政治、文化等方面开展了广泛而深入的交流活动，在友好合作的基础上，增进了双方的相互理解。随着韩国企业大规模地进入中国市场，中国人在韩资企业就业的机会不断增加，因此社会上对于韩国语的需求也不断扩大。尤为值得一提的是，韩国的传统价值观和影视文化相结合，形成了具有韩国特色的文化现象——韩流。韩流的出现大大激发了人们对韩国语和韩国文化的好奇心和求知欲。

目前，国内学习韩国语的动机逐渐倾向于就业、留学等实用性目的，其需求规模大大高于除英语、日语以外的其他语种。特别是近年来，由于赴韩求学的中国留学生人数急剧增加，开发出一整套能够适合这些学生特点的教学方法及教材已经成为燃眉之急。

为了适应这种环境变化，我们开发了这套韩国语教材，这是专门为中国的学习者量身定做的标准韩国语教材。迄今为止，虽然韩国语教材很多，但是专为某一国家，或专以留学、就业及考试等为特定目的而编写的教材却十分罕见。

本套教材曾在2006年2月以《유학생을 위한 특목 튀는 한국어》为题，在韩国出版了6册，此次外研社出版的是该套教材的中文版本。其中1-4册定名为《走遍韩国》，5-6册定名为《韩国语泛读教程》。

《走遍韩国》包括学生用书4册和辅导用书4册，共8册。教材中收录的听力资料均由韩国顶级配音演员录制，并制作成MP3文件附于书后。1-2册为基础韩国语，3-4册以日常生活韩国语为主。书中所收录的主题均与韩国的日常生活紧密相关，因此可以很方便地在实际生活中加以运用。如交友、聚会、租房、在银行开户等基础性的情景会话，以及说明文、记叙文、发言稿、公司面试用语等高级生活韩语。

《韩国语泛读教程》共4册，包括学生用书和辅导用书各2册。本教程通过精选的阅读材料，致力于培养学生的高级韩国语能力。其体裁涵盖诗、小说、报道、广告、评论等，内容包括经济、政治、文化等，涉及的范围相当广泛，可以让学生较深入地了解韩国。

本教材同时也是互为姊妹学校的韩国新罗大学和中国对外经济贸易大学之间开展学术交流活动的实际成果。衷心希望本教材能够对中国国内众多的韩国语学习者有所帮助。

最后，谨向为本教材出版给予大力支持的韩国新罗大学校长郑弘燮、中国对外经济贸易大学校长陈准民、外研社社长于春迟以及孙艳杰等韩国语编辑部的全体人员致以深深的谢意！

韩国	新罗大学	教授	李埰衍
中国	对外经济贸易大学	教授	徐永彬

2007年6月

目 录

목 차

1 단편 소설을

읽는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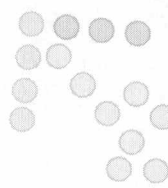
- (1) 소나기 3
- (2) 토끼전 23

2 사랑의 노래

- (1) 진달래꽃 39
- (2) 님의 침묵 41
- (2) 님의 침묵 44
- (3) 가난한 사랑 노래 48
- (4) 낙화 52
- (5) 사랑 I 56

3 수필 읽기

- (1) 눈물의 미학 61
- (2) 어느 날의 단상들 66
- (3) 방망이 깎던 노인 73
- (4) 국물 이야기 79



目录

目 录

4 신문을 통해 세상 읽기

	85
(1) 만평 읽기	87
(2) 일기예보 읽기	93
(3) 보도기사 읽기	95
(4) 해설기사 읽기	100
(5) 사설 읽기	107

5 정보 전달하는 글 읽기

(1) 인류의 미래	113
(2) 진통제	118
(3) 상술로 설계된 복잡한 미로	127
(4) 소리를 듣는 마음의 통로	134

6 다양한 광고 읽기

(1) 공익 광고	143
(2) 기업을 알리는 광고	152
(3) 상품을 알리는 광고	158

目 录

7 정보를 전달하는

글 읽기

	165
(1) 미술 감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167
(2)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좋은 이유	172
(3) 몰입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아홉 가지 성향	179
(4) 닫힌 사회 : <미운 오리새끼>의 우화	186

8 경제와 관련된

글 읽기

	193
(1) 경쟁은 아름답다	195
(2) <홍부전> 속의 부자 경제학	199
(3) 경기는 왜 변하는 걸까	204
(4) 돈 걱정 없는 가정을 만들자	208

9 중편 소설 읽기

	215
델러웨이의 창	217



1. 단편 소설을 읽는 즐거움

(1) 소나기

(2) 토끼전



음식물 구입 음식물 포장 1

다소 (1)

음료 (2)





(1) 소나기

읽기 전에

1. 제목 ‘소나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2. ‘소나기’에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글 읽기

소나기

황순원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曾孫女)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서로 이런 개울들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 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 올린 팔과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뻥히 들여다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췌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래도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뻥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머리를 나폴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다.

저 쪽 갈밭머리에서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보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건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비치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 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 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졌으면 좋겠다. 이 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내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짹짹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 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무모르는 체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 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애.”

못 들은 체했다. 두 위로 올라섰다.

“애, 이게 무슨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찼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참 마장 쯤, 소년은 우대로 한 십 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니?”

별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 보지 않으려?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봐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세 ‘바보, 바보’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하는 곁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걸.’하는 생각이 든다.

“아,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댄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저만큼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집안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매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친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을 돈다. 어지럽다. 저 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다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 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숫단을 세워 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 봤으면.”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밭으로 들어가, 무 두 밀을 뽑아 왔다. 아직 밀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 개 건넨다. 그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물어 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껌질을 벗겨 우썩 깨문다.

소녀도 따라 했다.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아 맵고 지려.”

하며 집어던지고 만다.

“참, 맛 없어 못 먹겠다.”

소년이 더 멀리 땡개쳐 버렸다.

산이 가까워졌다.

단풍잎이 눈에 따라왔다.

“아아!”

소녀가 산을 향해 달려갔다. 이번은 소년이 뒤따라 달리지 않았다. 그러고도

곧 소녀보다 더 많은 꽃을 꺾었다.

“이게 들국화, 이게 싸리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그런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반듯이 해 보인다. 약간 상기된 얼굴에 살포시 보조

개를 떠올리며,

다시 소년은 꽃 한 움큼을 꺾어 왔다. 싱싱한 꽃가지만 골라 소녀에게 건넨다.

그러나 소녀는

“하나도 버리지 마라.”

산마루계로 올라갔다.

맞은편 골짜기에 오순도순 초가집이 몇 모여 있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바위에 나란히 걸터 앉았다. 유달리 주위가 조용해

진 것 같았다. 파가운 가을 햇살만이 말라 가는 풀 냄새를 퍼뜨리고 있었다.

“저건 또 무슨 꽃이지?”

적잖이 비탈진 곳에 칙덩굴이 엉키어 꽃을 달고 있었다.

“꼭 등꽃 같네. 서울 우리 학교에 큰 등나무가 있었단다. 저 꽃을 보니까 등

나무 밑에서 놀던 동무들 생각이 난다.”



소녀가 조용히 일어나 비탈진 곳으로 간다. 꽃송이가 많이 달린 줄기를 잡고
끊기 시작한다.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다. 안간힘을 쓰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만
다. 첩덩굴을 그리워했다.

소년이 놀라 달려갔다. 소녀가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이끌어 올리며, 소
녀는 제가 꺾어다 줄 것을 잘못했다고 뉘우친다. 소녀의 오른쪽 무릎에 핏방울
이 내뿜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생채기에 입술을 가져다 대고 빨기 시작
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책 일어나 저 쪽으로 달려간다.

좀 만에 숨이 차 돌아온 소년은

“이걸 바르면 낫는다.”

송진을 생채기에다 문질러 바르고는 그 달음으로 첩덩굴 있는 데로 내려가,
꽃 많이 달린 몇 줄기를 이빨로 끊어 가지고 올라온다. 그리고는

“저기 송아지가 있다. 그리 가 보자.”

누렁 송아지였다. 아직 코뚜레도 꿰지 않았다.

소년이 고삐를 바루 잡아 쥐고 등을 굽어 주는 채 훌쩍 올라탔다. 송아지가
경충거리며 돌아간다.

소녀의 흰 얼굴이, 분홍 스웨터가, 남색 스커트가, 안고 있는 꽃과 함께 범벅
이 된다. 모두가 하나의 큰 꽃뭉치 같다. 어지럽다. 그러나 내리지 않으리라. 자
랑스러웠다. 이것만은 소녀가 흉내내지 못할,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너희, 예서 뭇들 하느냐?”

농부 하나가 억새풀 사이로 올라왔다.

송아지 등에서 뛰어 내렸다. 어린 송아지를 타서 허리가 상하면 어찌하냐고
꾸지람을 들을 것만 같다.

그런데 나뭇이 긴 농부는 소녀 편을 한번 훑어보고는 그저 송아지 고삐를
풀어 내면서,

“어서들 집으로 가거라. 소나기가 올라.”

참, 먹장구름 한 장이 머리 위에 와 있다. 갑자기 사면이 소란스러워진
것 같다. 바람이 우수수 소리를 내며 지나간다. 삼시간에 주위가 보랏빛으



로 변했다.

산을 내려오는데, 떡갈나무 앞에서 빗방울 듣는, 소리가 난다. 굵은 빗방울이었다. 목덜미가 섉뚝섉뚝했다. 그러자 대변에 눈앞을 가로막는 빗줄기.

비안개 속에 원두막이 보였다. 그리로 가 비를 그을 수밖에.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

소녀의 입술이 파아랗게 질렸다. 어깨를 자꾸 떨었다.

무명 겹저고리를 벗어 소녀의 어깨를 싸 주었다. 소녀는 비에 젖은 눈을 들어 한 번 쳐다보았을 뿐, 소년이 하는 대로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는 안고 온 꽃묶음 속에서 가지가 꺾이고 꽃이 일그러진 송이를 골라 발 밑에 버린다.

소녀가 들어선 곳도 비가 새기 시작했다. 더 거기서 비를 그을 수 없었다.

밖을 내다보던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수수발 쪽으로 달려간다. 세워 놓은 수수단 속을 비집어 보더니, 옆의 수수단을 날라다 덧세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 본다. 그리고는 이 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수단 속은 비는 안 새었다. 그저 어둡고 좁은 게 안 됐다. 앞에 나앉은 소년은 그냥 비를 맞아야만 했다. 그런 소년의 어깨에서 김이 올랐다.

소녀가 속삭이듯이, 이리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괜찮다고 했다. 소녀가 다시, 들어와 앉으라고 했다. 할 수 없이 뒷걸음질을 쳤다. 그 바람에, 소녀가 안고 있는 꽃묶음이 망그러졌다. 그러나 소녀는 상관 없다고 생각했다. 비에 젖은 소년의 몸 내음새가 확 코에 끼얹혀졌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도리어 소년의 몸기운으로 해서 떨리던 몸이 적이 누그러지는 느낌이었다.

소란하던 수수일 소리가 똑 그쳤다. 밖이 멀개졌다.

수수단 속을 벗어 나왔다. 멀지 않은 앞쪽에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쬘고 있었다. 도랑 있는 곳까지 와 보니, 엄청나게 물이 불어 있었다. 빗마저 제법 붉은 흙탕물이었다. 뛰어 건널 수가 없었다. 소년이 등을 돌려 댔다. 소녀가 순순히 엎히었다. 건어올린 소년의 잠방이까지 물이 올라왔다. 소녀는 “어머나!” 소리를 지르며 소년의 목을 끌어안았다.

개울가에 다다르기 전에, 가을 하늘은 언제 그랬는가 싶게 구름 한 점 없이